

미국장로교
제 사십 사 차 총회 결의안들
총회 서기 L 로이 테일러

제 44 차 총회 장소, 알라바마 주 모빌

제 사십 사 차 총회는 2016 년 6 월 20 일부터 23 일까지 알라바마의 역사적 항구 도시인 모빌의 모빌 컨벤션 센터에서 회합했다. 걸프 코스트 노회가 회의를 주최했고, 강도 장로 맥 그리피트가 주최 위원회 의장으로 섬겼다. 강도 장로 (TE) 1,029 명과 치리 장로 (RE) 287 명, 총 1,316 명의 총대가 참석했다. "원기 회복: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를 위하여" 라는 주제를 기반으로 한, 사흘 저녁 예배들은 총회의 정점들이었다. 설교자들은 중경 총회 의장, **치리 장로 짐 워트**, 뉴욕시의 리디머 장로교회 담임 목사 **팀 켈러 박사**와 세인트 루이스의 그레이스 앤드 피스 펠로우십 교회의 부목사 **셜만 윌리엄스 박사**였다. 음악가인 **키드와 크리스틴 게티**가 음악회를 가졌고 수요일 저녁 예배 음악을 인도했다. 통상 안전들에 추가하여, 총회는 여러 **핵심 주제들**을 다루었다. 1) 인종 간 화해, 2) 미국장로교 내 여성의 역할, 3) 타락한 세상에서의 성적 파손, 4) 미국장로교 로고. 총회는 첫 두 주제에 관한 연구 위원회를 구성했다.

조지 W. 라벨슨 박사, 총회 의장

조지아 주 어거스타시의 제일장로교회 (1804 년 설립) 담임 목사인 철학박사 조지 라벨슨 목사가 반대 없이 총회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알라바마 주 터스컴비아의 제일 장로교회의 사역을 통하여 믿음 안에 제자화되어져 온 덕에, 커버넌트 대학교, 커버넌트 신학교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졸업하였다. 그와 그의 아내 잭클린은 한 아들과 세 딸의 부모이다. 라벨슨 박사는 1991 년에서 2005 년까지 세인트루이스의 커버넌트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섬겼고, 2005 년 이후에는 제일 어거스타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다. 그의 사역 하에 두 교회들은, 재활성화와 영적 또 통계적 성장 둘 다를 경험하면서, 불화에서 회복되었다. 미국의 남부 연방에서 장로 교단을 형성한 장소인 어거스타에서, 라벨슨 박사는, 주변 공동체들을 잇는 관계적 교량들을 세우면서, 여러 공동체를 전도하는 노력과 전인적 사역들을 통하여 인종적 화해의 귀감으로 교회를 이끌어 왔다. 최근 장년 새 교우반의 절반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다. 그 교회는 학원 사역에 깊이 관여되어 있고 얼스킨 신학교 분교를 주최하고 있다. 라벨슨 박사는 인지될 수 있는 겸손과 공평함고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유머로 총회를 사회했다.

인종 간 화해

작년에, 루카스 박사와 리곤 던칸 박사가 상정한 개인적 헌의안에 대한 응답으로 총회는 노회들이 인종 간 화해에 관한 그들의 의견을 표현하라고 초대했다. 금년에 노회들로부터 인종 간 화해의 주제를 다루는 총 **마흔 세계의 헌의안들**이 총회에 상정되었다. 미조리 노회의 헌의안 4 가, 같은 말들을 사용하거나 약간씩 바꾸거나 한, 많은 다른 헌의안들의 표본으로 기여했다. 헌의 위원회에서는, 추천안 1 로서 총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미조리 헌의안(4), 북서 조지아 헌의안(53)과 미시시피 벨리 헌의안(55)에 상정된 요소들을 포함하는, **포토맥 노회에서 상정한 헌의안 43**이 틀로 사용되었고 **수정되었는데, 동 추천안은 수정된대로 채택되었다.** 수정된 헌의안은 이 보고서에 첨부되었다. 인종 간 화해에 관한 남아 있는 헌의안들은 포토맥에서 상정한 수정된 헌의안 43 을 언급함으로 대답되었는데, 그것은 이 보고서에 추가되었다. 총대 한 사람이 정중한 이의를 접수 시켰다. "그것만 아니라면 칭찬할 만한 총회가 채택한 결의안들에 대하여, 저는 첫 두 문단들에 있는 단어 '회개'의 사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들을 회개 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총회는 또 포토맥 노회에서 상정한 헌의안 45 를 수정하고 인준하여 인종 간의 화해와 복음의 증진을 결과하기 위하여 밟아야 될 구체적 단계들을 개발하는 **연구 위원회를 구성했다.** **연구 위원회의** 일곱 투표 위원들은 케빈 스미스 (소집자), 칼 엘리스, 알렉산더 전, 션 루카스, 요나단 세다, 리치 세션스와 알렉스 쉽맨이다. 자문위원들은 실베스터 브라운, 오티스 픽젤과 러스 윌필드이다.

끝으로, 총회는 장래 세대의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다른 소수 민족의 강도 장로들과 치리 장로들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내선교위원회 (MNA) 앞으로 지정 현금을 보내고 또 국내선교위원회에서 기금을 관리하도록 하는 "미국장로교 연합 기금"을 제정하도록 투표했다.

미국장로교 내 여성의 역할

목회협력위원회(CMC)는 행정위원회(AC) 항존 위원회에 총회가 지역 교회, 노회와 총회 수준에서 미국장로교 내 여성의 역할에 관한 연구 위원회를 구성 할 것을 추천했다. (의장과 조정자들 또는 자문위원들로서 최근의 여섯 증경 총회 의장들과 함께 열 개의 총회 위원회들과 기관들의 회장으로 구성된) 목협회가 총회에 직접 추천하지는 않는다. 행정위원회가 총회에 다음과 같은 사안들을 조사할 연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추천했다. 1) 안수의 성경적 근거, 신학, 역사, 성격과 권위. 2) 집사 직분의 성경적 성격과 기능. 3) 집사/여집사들의 안수 후 위임에 관한 해명. 4) 연구 위원회가 발견한 것들이 헌법(BCO)의 변경들, 즉, 총회가 고려하도록 상정된 변경들을 보장해야만 하는가. 미국장로교는 강도 장로, 치리 장로, 집사의 직분에 오직 남자들만 안수한다 (헌법 7-2). 항존 위원회의 일년 간의 사역을 검토하기 위하여 총회 때 모이는 노회들의 대표들로 구성된 행정위원회의 총대 위원회(CoC)는 투표수 31-7 로 총회가 연구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야 한다고 총회에 추천했다. 연구 위원회가 없어야 한다는 총대 위원회의 추천은 447-699-8 로 부결되었다. 연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행정위원회 항존위원회의 추천이 767-375-12 로 인준되었다. 스물 여섯 총대가 그 조치에 반하여 항의를 접수 시켰다. 총회는 그 항의가 "그 조치에 대한 심각히 잘못된 특성짓기"였다는 대응을 인준했다. 연구 위원회의 일곱 투표 위원들은 얼윈 인스 (소집자), 제프리 최, 리곤 던칸, 캐티 켈러, 매리 베쓰 맥그리비, 부르스 오닐과 해리 리더이고, 자문위원들은 니키샤 알윈도, 리온 브라운, 덴 도리아니, 김벌리 조운스, 래니 조운스와 로이 테일러이다.

연구 위원회와 미국장로교 연합 기금에 기부를 위한 지시 사항들

연구 위원회와 미국장로교 연합 기금 둘 다 지정 현금으로 하기되어져야 할 것이다.

- 여러분의 기부의 목적을 명시하십시오.
- 여성의 역할에 대한 연구 위원회 혹은 인종 간 화해에 대한 연구 위원회를 위하여는 행정위원회의 다음 주소로 기부들을 보내십시오. The Administrative Committee, 1700 N. Brown Road, Suite 105, Lawrenceville, GA 30043.
- 미국장로교 연합 기금을 위하여는 국내선교위원회로 기부들을 보내십시오. Mission to North America, PO Box 890233, Charlotte, NC 28289-0233.

타락한 세상에서의 성적 파손

우리 문화 내의 성적 문제들에 관한 몇 가지 최근 사건들은 부모님들, 교회 지도자들과 다른 개인들을 우려하게 해 왔다. 목회협력위원회는 총회 보고서에 타락한 세상에서의 성적 파손에 관해, 하위 위원회가 이 논쟁이 되는 주제를 사랑으로 진실을 말할 것을 추구하고, 성경적으로 또 목회적으로 그 문제를 언급한 보고서를 포함 시켰다. 그 보고서는 동시에 도움이 되는 자원의 목록을 포함하고 있다. 총회 주간 중 수요일 오전에 총회적으로 세미나가 있었다. 토론 진행자들은 세 사람의 목사로 구성되었다. 하베스트 유에스에이의 전무이사, 팀 가이거는 다양한 형태의 성적 파손으로 갈등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있다. 키스키 벨리 미국장로교의 담임 목사, 알렌 에드워드는 이전의 자기 자신의 갈등을 총회에서 나누었다. 또 미시시피 주 잭슨 시의 제일 장로교회 담임 목사 데빗 스트레인은 이 문제로 영향을 받아 온 사람들을 목회적으로 상대해 왔다. 세미나는 많은 사람들이 출석했고 잘 받아들여졌다.

미국장로교 로고



1973 년에 있었던 첫 총회에서 미국장로교 로고가 고려되었다. 그것은 1982, 1983, 2006, 2014 와 2015 년에 다시 토론되었다. 사안은 행정위원회에 보고와 총회 추천을 위하여 행정위원회 하위 위원회인 역사관(HC)에 위탁되어 왔다. 역사관 하위 위원회는 제시된 여러 표장들을 놓고 광범하게 토론한 후, 비버 디자인 그룹의 제 일 창작 관리자인 스티브 비버의 용역을 계약했다. 디자인 그룹은 초기에 백 가지가 넘게 개발해서 선택하게 했고, 점차적으로 아홉 가지를 역사관 하위 위원회에 제출했다. 이것들은 전국적으로 시행된 설문과 나라 안에서 주취되었던 네 표적 집단을 사용하여 평가되었다. 총회의 지시에 따라, 금년에 두 개의 도안들이 제출되었다. 총회는 여기에 보여진 도안을 325-277-11 로 선택했다. 미국장로교 창시자 중 한 사람인 케네디 스마트의 아들인 맬 스마트가 비버 디자인 그룹과 함께 일하면서 채택된 로고의 첫 도안을 만들었다. 로고는 흑백 혹은 (파란)색 글자 PCA 혹은 교단명,

미국장로교와 함께 가용되게 될 것이고, 어쩌면 여러 신청서들에 사용될 것이다. 미국장로교 로고에 접근하려면 행정위원회 웹사이트, www.pcaac.org 를 보라.

숫자로 본 미국장로교

총회 서기는 그의 연감 보고서에서 2015 년에 우리가 가진 변화를 보고했다.

- 1534 교회들, 증가 35.
- 327 개척 교회들, 감소 다섯.
- 총 교인수 370,332, 증가 11,816.
- 주일학교 출석 97,719, 증가 1,096. 이것은 지난 수년 간 첫 주일학교의 증가이다.
- 총 신앙 고백 9,679, 증가 254.

기부는 모든 범주에서 증가했다. 모든 주류 또 얼마의 복음주의 교단들이 정체하고 있거나 감소하고 있는 반면, 미국장로교의 성장은, 초기 몇 년처럼 눈부신 것은 아니지만, 주목할만 하다.

리더십 변화

- 제임스 "짐" C. 블랜드, 3 세 박사는 국내선교위원회 조정자로 십칠년을 봉사한 후 은퇴했다. 국내선교위원회의 조정자로서의 그의 재임 중 학원선교위원회가 항존위원회 중 하나로 파생되었고 교회 개척에 중점적 강조를 유지하는 반면 여러 새로운 주도들이 시작되었다. 총회는 기립 박수로 감사를 보여주었다. 짐과 그의 아내, 린다는 다음 단계의 사역을 기대하고 있다.
- 제임스 폴 한 주니어 목사가 국내선교회 새 조정자로 선출되었다. 폴은 미시시피에서 간사 목사로, 어번 대학교에서 교목으로, 텍사스의 어스틴에서 개척교회 목사로, 테네시의 낙스빌에서 테네시 밸리 노회의 개척 교회 조정자로서 섬겼다. 그는 쉰 세살이다. 그와 그의 아내, 프랜시스네 자녀의 부모이다.
- 최근 몇 년 동안 열개의 총회 위원회와 기관들 중 일곱(릿지 헤이븐 회관, 커버넌트 대학교, 커버넌트 신학교, 제자사역위원회, 학원선교위원회, 세계선교위원회와 국내선교위원회)이, 주로 은퇴로 말미암아, 조정자들과 회장들이 바뀌어 왔다.

총회 차원 사역들에 관한 경과 보고서

- 행정위원회는 총회에 미국장로교 로고 채택, (목회협력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교회 사역들에서 여성의 역할에 관한 연구 위원회의 구성, 행정위원회가 책임을 져야 하는 수수료들과 부과금들의 동결과 상임 위원회들과 기관들의 예산의 인준을 추천했다.

- **제자사역위원회**는 2016년 사월에 시작하여 미국장로교 전체로부터 여성들이지역의 **변혁** 대회들을 위하여 모일 것이라고 보고했다. 제자사역위원회 간사가 어린이들 예배 과정을 개발했다. www.teachmetoworship.com 을 보라.
- **커버넌트 대학교**는 삼개년 전략 계획이 실시되어 왔다고 보고했다. 시각 예술관이 건축되었다. 카터 홀의 개조를 위한 기금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 **커버넌트 신학교**는 에드워드 홀 공동체 회관이 새로 꾸며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커버넌트 신학교 교수들과 동창들은 많은 중요한 출판에 참여해 왔다.
- **국내선교위원회의** 새로 선출된 조정자, 폴 한은 국내선교위원회가 미국장로교 교회들의 대다수를 보조하기 위한 다른 강조들에 추가하여 **교회 재활성화**를 강조할 것을 시사했다. 미국장로교의 여든 다섯번째 노회인, 컬럼버스 메트로폴리탄 노회의 구성이 인준되었다.
- **세계선교위원회**는 현재 86 나라에 586 선교사들을 현장에 두고 있다. 조정자 로이드 킴 박사는 교단 장년 교인들의 1%(2800 명의 위세!)가 선교사들이 되도록 기도 할 것을 촉구했다.
- **미국장로교 재단**은 2015 년도에 9 백만불 이상을 기독교적 명분들을 위해 분배했는데, 그 중 5 백 10 만불이 미국장로교의 교회들, 사역들, 명분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고했다.
- **미국장로교 은퇴 및 혜택 재단**은, 은퇴 목사들, 장애 목사들, 과부들, 무임 목사들, 평신도 사역자들과 부양자들을 포함하여, 60 사역 구제 수혜자들이 489,026 불을 수령했다고 보고했다.
- **학원선교위원회**는 2015 년에 다섯 개의 새로운 학교 사역들이 시작됐다고 보고했다. 학원선교회는 60 개 노회들 안에서, 39 주에 있는 145 학교들에서 사역한다.
- **릿지 헤이븐 회관**은 이년 연속 릿지 헤이븐이 3,500 여름 캠프 손님들을 환영했다고 보고했다. 겨울 캠프와 특별 캠프도 수가 늘고 있다.

다른 총회 조치들

- 무임 목사들이 연간으로 혹은 서면으로 그들의 소속 노회에 보고하도록 한 상정된 **헌법 13-2**의 수정안을 **초기 인준을 하여** 노회들로 내려 보냈다. 5-3 은 개척 교회 임시 치리체 회의록을 노회가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를 추가했다.
- 노회 법사위원회 소수 보고서를 허락하도록 상정된 **헌법 15-3** 을 **체사씩 노회로 되돌려 보냈다.**
- 동성애 결혼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오버지펠의 판결에 비추어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호소할 것에 관한 그레이스 노회의 현의안 7 을 **행정위원회로 돌렸다.**
- 총회가 특정한 소송건들에 관하여 상임법사위원회에게 조언 할 것을 허락하도록 상정된 **헌법 15-5** 의 수정안, 절차 없는 소송건의 경우 고소에서 호소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한 42-2, 사전 재판 고소를 허락하도록 한 43-1, 또 만일 교리적 견해들에 관한 것이면, 직분자가 자기 자신의 재판에서 증언 할 것을 요구하도록 한 35-1 은 **인준하지 않았다.**

제안된 기도, 헌금과 행사들

- 지역 당회들이 결정한 대로 커버넌트 대학을 위한 기도.
- 2016년 11 월은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의 달 (세계선교위원회)
- 지역 당회들이 선택한 날짜에 세계선교위원회의 사랑의 사역들을 위한 특별 헌금.
- 2016년 11 월 6 일, 전 세계의 뾰박받는 교회들을 위한 기도의 날 (세계선교위원회)
- 연례 구제 사역 헌금 (미국장로교 은퇴 및 혜택 재단)
- 2017년 미국장로교 여성회를 위한 사랑의 기금은 (제자사역위원회) 커버넌트 대학교를 위한 것이다.
- 총회는 **십일조와 헌금 총액의 0.35 퍼센트에 기초하여 교회들이 행정위원회에 기부하도록 한 요청을 인준했다 (단 기금 마련 프로젝트는 제외함).**
- 제 사십 오 차 총회는 2017년 6월 13 일에서 16 일까지, 노스캐롤라이나 주 그린스보로 시에서 회합 할 것이다.

첨부

포토맥 노회가 상정한 제 44 차 총회에서 수정되고 채택된대로의 헌의안 43

"인종 간의 화해와 복음의 증진을 추구하는 것"

제 44 차 미국장로교 총회는, 민권 운동 기간에 범해진 죄들과, 또 인종에 따른 예배자들의 분리, 인종에 근거하여 사람들이 교회 등록 교인이 될 수 없도록 한 배척, 인종에 근거하여 교회들, 혹은 장노들이 노회원들이 될 수 없도록 한 배척, 성경이 인종 분리를 인가하고 인종 간 결혼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한 가르침, 백인 우월주의자들 단체에 가입하거나 그들에 대한 변호, 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로마서 13:10) 라고 한 복음의 명령을 살아 내지 못한 것과 같은 우리 자신들과 우리 선조들이 계속하고 있는 인종적 죄들을 포함하여, 단체적 또 역사적 죄들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정죄하고 회개한다는 것을 **결의하여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총회는 복음이 요구하는 것에 따라 소수 문화들 출신 형제 자매들을 과거에 사랑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종적 죄들과 개인적 편견에 관해 사랑으로 형제 자매들과 맞서지 못한 것과, 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 (이사야 1:17) 주지 못한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정죄하고 회개할 것을 **결의하여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이 총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증진을 위하여, 겸손과 신실함과 열심으로, 인종 간 화해라는 목적을 증진 시키기 위한 효과적 행동 과정들을 근면하게 찾으면서, 인종 간 화해의 복음적 과제를 칭송하고 거기에 재 헌신할 것을 **결의하여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총회가 미국장로교의 회중들과 노회들이 이 결의안을 그들의 회원들에게 알리도록 할 것을 촉구하여 그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대로 그들 자신의 인종적 죄들을 기도로 고백하고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의 증진을 위하여 인종 간 화해를 향해 노력하도록 할 것을 **결의하여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제 44 차 총회는, 어떻게 한 노회가 인종 간 화해를 향해 해당 노회의 교회들을 위하여 목양적 리더십을 공급 할 수 있는지의 표본으로서 헌의안 55 에 포함된 목회 서신¹에 교회들과 노회들이 주목하도록 요청 할 것을 **결의하여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제 44 차 총회가 미국장로교의 교회들과 노회들에게 **헌법** 31-2 와 38-1 이 이런 영역에서 죄를 지어 왔거나 계속 짓고 있는 자들을 상대하기 위한 유력하고 준비된 가용 수단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 시켜 줄 것을 **결의하여야 할 것이다.**

¹ 미시시피 밸리 노회가 제 44 차 총회에 상정한 헌의안의 첨부 1, 목회 서신은 여기 <http://www.pcaac.org/wp-content/uploads/2016/07/Pastoral-Letter-Overture-55-MS-Valley.pdf> 에서 찾으라.